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성,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통제 및 자기통제 만족도와의 관계

Self-Control and Satisfaction with Gender and Sex-Role Identity i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이 경 희*

Lee, Kyung Hee

ABSTRACT

The impact of gender, sex - role identity and cultural background on self - control behaviors was studied with the use of reports from 410 college students(201 Koreans and 209 Americans), who were administered both the Bem Sex Role Inventory and the Missouri Self Control Instrument. Gender, sex - role identity and cultural background significantly affected self - control and satisfaction. Regardless of cultural background, males showed a higher level of self - control and satisfaction than females. Androgenous students from both nations used a higher level of expressed/yielded self - control and more satisfied than the students with other sex - role identitie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self - control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For the American students, the level of expressed self - control was the critical factor in explaining self - control behavior, whereas the level of yielded self - control was the critical factor for the Korean students. This was explained as a phenomenon of culture - bound relationships. Regardless of sex and sex - role identity,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Korean stude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merican students.

The present results suggested that Korean students have some sort of conflict between self - control and satisfaction. The conflict can probably be attributed to the recent influx of western culture emphasizing goal - oriented control.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의 제기

인간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에 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

각되어 왔다. 현재까지 건강한 삶이란 정신적인 건강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건강은 “인간 본질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Schultz, 1977 p. 13)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는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총체

*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수료)

적인 건강이라는 개념일 수는 없다. Allport (1955), Jourard (1968), Maslow 등(1968)은 총체적인 의미의 건강을 “성숙” 또는 “심리적 건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적절한 행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행위자”(Schultz, 1977 p. 218)이고 따라서 자기통제 (self-control)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통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왔다.

자기통제의 개념은 크게 두가지의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 Burger 와 Cooper (1979)는 통제 욕구가 큰 사람은 단호하며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Langer (1983)는 통제를 “주의 깊은 숙달의 과정”(p. 20)으로 정의하였고 Smith 등(1984)은 “행동이나 환경을 조절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p. 416)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자기통제란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행동이나 환경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통제란 적극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그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양보적 측면 (yielding control)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Shapiro, 1983), 조화예의 노력, 양보하는 행동, 사회적 개체화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Shapiro, 1983; Lykes, 1985).

최근에 자기통제의 양 측면 중에서 적극적 측면이 양보적 측면보다 반드시 효과적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은 “능동적인 동시에 양보적인 사람이며 양 측면의 균형을 통해 자기통제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Shapiro, 1983 p. 373)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표현의 면에만 치우치거나 반대로 소극적인 양보로의 편향은 통제가 없는 상태

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역기능적일 수 있다.

인간의 통제행위는 내적 욕구와 사회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이므로 각 개인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 또는 기대도와 관련을 가지게 된다. 사회의 기대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개인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통제행위를 추구하도록 요구받는다. 따라서 자기통제를 건강한 삶과 연관지을 때 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초기의 연구들에 따르면 남녀의 차이가 건강상태에도 나타나서 남자는 공격적이고 단호하며 독립적이고 경제 부양자적인 모습을, 여자는 모성적이고 가정적이며 소극적이고 희생적인 통제를 보일때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였다 (Fabricant, 1974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되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여성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남성보다 더 자기 표현적이고 독립적이라는, 다시 말해서 능동적인 자기 통제를 한다는 보고가 그 예가 된다 (Shapiro, 1985).

성보다는 성역할정체감이 인간의 통제행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하고 성역할정체감, 통제 그리고 심리적 건강에 대한 논의가 또한 이루어져 왔다 (Ganong 과 Coleman, 1987; Shapiro, 1985). 건강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남성형 및 전통적 여성형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이들의 균형적인 통합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Bem (1975)은 남녀특성을 균형적으로 나타내는 양성적인 사람이 그들 환경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자유로움을 누린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 성역할정체감이 자기통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심리적 건강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자기 통제는 또한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각 문화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 또는 이상적 인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헬레니즘 문화권에서의 자율적 개인(autonomous individual harmony with the community), 회교권에서의 윤리적 극기(ethical Self-restraint), 유교권에서의 자족(Self-sufficiency)과 내적 자기규제, 기독교권에서의 통제는 자기통제에서의 두가지면 즉 능동적인 측면과 양보적 측면의 균형이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문화권에 따라 능동적인 면 또는 양보적인 측면의 가치에 대해 편향성을 보일 수 있고 이것이 그 사회구성원들의 자기통제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Walsh와 Shapiro, 1983 p. 371).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적 건강의 중심 요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자기통제에 미치는 성, 성역할 정체감,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자기통제 유형 및 그에 대한 만족도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자기통제 유형 및 그에 따른 만족도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3) 자기통제 유형 및 그에 대한 만족도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4) 성, 성역할정체감, 문화적 배경간에는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통제의 개념

인간은 삶의 본능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또는

환경을 통제해야 하는 필연성(White, 1959)에 의해서 자기통제의 동기를 가지게 되며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지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Phares, 1984 p.466). 그러므로 통제행위는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작용하여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들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여 적절한 행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행위자”(Schultz, 1977 p.218)가 된다.

자기통제는 “의식적인 숙달의 과정”(Langer, 1983 p.20), “행위나 환경을 조절하거나 행위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Smith, Wallston, Forsberg와 King, 1984)” 또는 “능동적이고 명확하게 행동하며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Ganong과 Coleman, 1987).

Averill(1973)은 통제를 세 가지의 독립적인 유형으로 파악한다. 직접적인 환경 개입을 통하여 부딪친 사상(events)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행동적 통제(behavioural control), 사상을 해석하는 것과 관계를 가지는 인지적 통제(cognitive control), 그리고 주어진 여러가지 가능성 가운데서 선택하는 결정적 통제(decisive control)가 그것들이다.

지금까지의 자기통제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는 “능동적 행위”를 어떤 범주에서 파악하느냐이다. “능동적 행위”를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의미로서 파악하게 되면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행동은 통제 행동과 통제외적 행동의 두 상황으로 분류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통제가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유발하려고 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통제를 포기하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주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제 불가능성의 인식은 통제의 동기 감소와 포

기를 유발하여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현상을 일으킨다. 통제불능 환경의 인식 정도는 사람의 성격, 기대, 강화,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생각에서 통제의 인식 정도를 크게 두가지 범주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이론이며 Rotter(1954)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강화를 운, 우연, 운명, 또는 권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지각할 때에는 외적 통제소재(external locus of control)의 신념으로 간주된다. 반면 사상을 전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것으로, 또는 영속적인 자신의 특징에 의한 것으로 지각할 때 내적 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의 신념으로 파악된다(Rotter, 1966). 외적통제 소재의 신념을 보이는 사람들은 수동성, 움추림, 동화 또는 우울증의 현상을 나타내는 비율이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보이는 사람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McGinnies 와 Ward, 1974; Strassberg, 1973; Strickland, 1974). 이 결과들에 따르면 내적 통제소재의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분명히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관한 연구(Langer, 1983 p. 279-292)에서 지적된 바대로 주어진 환경이 개인적 통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통제의 문제를 행위의 적극성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위의 주장들은 그 논리적 명료성에도 불구하고 자기통제를 단순하게 파악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 논리에 따르면 수동성, 위축, 복종 등의 내적 행위는 능력의 부족, 기회의 제한성, 그리고 강력한 다른 사람에 기인된 통제의 포기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과 그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실제로 통제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Rothbaum et al. 1982). 통제는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환경에의 영향력 발휘에만 국한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동적이거나 복종적인 행위도 능동적인 통제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Rothbaum(1982)등은 통제행위를 적극적인 환경에의 개입을 시도하는 일차적 통제(primary control)와 능동적인 환경적응을 시도하는 이차적 통제(secondary control)의 두 범주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차적 통제의 특성인 사상(events)의 변화 시도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부수되는 저항으로 인하여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통제 욕구가 큰 사람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하기가 쉽다(Burger, 1984). 따라서 일차적 통제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의 극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반면 이차적 통제의 특성은 저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차적 통제에 비해 위험성이 적으며 그 결과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다.

이차적 통제행위는 네 가지 유형을 가지게 된다. 일차적 통제의 실패가 명확하여 통제의 포기 이후의 좌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예측적 통제(predictive control),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이나 외부의 우연적 상황(미신적 행위등)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환상적 통제(illusory control), 강력한 타인의 통제행위를 통해서 환경 통제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대리적 통제(vicarious control),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그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설득적 통제(interpretative control)가 그것들이다. Rothbaum 등(1982)은 위의 네가지 유형 모두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향

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시도보다 강력할 때 이차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차적 통제행위를 통제불능의 지각 또는 동기감소의 범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통제불능이론은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통제행위를 일차적, 이차적 통제의 두 과정으로 범주화하여 파악한다면, 인간의 심리적 건강을 일차적 통제행위의 행사에 기준을 두기 보다는 이 두 통제의 범주의 조화에 의한 최적 적용에 기준을 두고 봐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동서양의 사고차이의 관점에서 Shapiro (1983)는 인간의 행위는 네 가지 유형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동양에서의 통제형태는 양보(yielding), 수용(acceptance), 방관(letting go), 거리감(nonattachment)면에서 파악되며 서양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호함(assertiveness), 목적지향(goal-orientedness), 생산성(productivity), 그리고 도구성(instrumentality)의 면에서 파악된다. 이 동서양의 사고를 종합하면서 그가 제시한 틀은 사분모형(quadrant)으로 제일사분원은 목적 지향, 자발성(self-starting), 진취성(initiating mode)을 포함하는 긍정적 단호함(positive assertive)의 영역이며, 제이사분원은 양보(yielding), 수용(accepting), 방관(letting go), 연민(compassionate)을 포함하는 긍정적 양보(positive yielding), 제삼사분원은 공격성(aggressiveness), 과통제(over control), 이기심(selfishness), 완고함(rigidity)을 포함하는 독선(negative assertive)을, 그리고 제사사분원은 수동성, 겁 많음, 추종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복종(negative yielding)의 영역이다. Shapiro와 Shapiro(1984)의 모형은 자기통제를 연구함에 있어 다른 모형에 비해 보다 일반성을 추구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의 개념을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표현적 자기통제의 면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기통제의 두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성,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통제

성 자체는 생물적인 것이며 생물은 그 종족의 번성에 적합하도록 성에 맞는 역할의 분담과 그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개체는 그 성에 요구되는 특성적인 성격을 보이게 되고, 사람의 경우 이 특성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성성, 여성성으로 치칭된다. 남성성은 가정밖에서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사회 경제적 가치지향에 필요한 특성들을, 여성성은 가정안에서의 모성적 가치지향에 필요한 특성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는 전형적인 남성의 특성을 지니도록, 여자는 전형적인 여성의 특성을 지니도록 강조되고 교육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성의 특징적인 통제를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우울증에 빠짐을 입증하고 있고(Baucom, 1979)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자기확신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Instone, Major와 Bunker, 1983). 남자의 성역할 유형은 그들에게 유익한 개인적 선택기회들을 확대하는 것 같으나 여성에게 요구된 성역할 유형은 유용한 행위 및 표현의 통제를 제한하는 것 같다(Block, Lippe와 Block, 1973). 전통적인 성과 통제, 심리적 건강의 개념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최근 성보다는 성역할정체감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성보다는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이 자기통제 및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Shapiro, 1985; Ganong 과 Coleman, 1987).

Bem (1975)은 전통적인 고정관념화와 남성성, 여성성의 양극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즉 한 개인이 남성적, 여성적 행동 및 특질을 동시에 다 나타낼 수 있으며 심리적인 건강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높게 가질때 이루어진다는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양성적인 사람은 사회 문화적 개념에 순응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Bem, 1979). 실제로 양성성의 사람이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건강하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Bem 과 Lenny, 1976; Downey, 1984; Hefner, Rebecca 와 Oleshansky, 1975; Williams, 1979). 양성성은 사회 심리적 발달 수준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을 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 건강 상태가 좋고 (Lubinski, Tellegen 과 Butcher, 1981) 타인이 적응이 잘된 사람이라 지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Major, Carbevale 과 Deaux, 1981) 환경에 대한 적응이 높다 (Flaherty 와 Dusek, 1980)고 보고되었다. 또한 자존감에서도 높고 (Eman 과 Morse, 1977; Flaherty 와 Dusek, 1980; O'conner, Mann 과 Bardwick, 1978; Orlefsky, 1977), 병리학적 증상을 훨씬 덜 보이며 (Baucom 과 Danker - Brown, 1977; Nevill, 1977; Tailor 와 Hinds, 1985), 부부만족도 및 개인적 적응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Cooper, Chessin 과 Zeiss, 1985)고 하였다. 또한 양성성의 사람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에도 동시에 개인적 만족감도 높음이 밝혀졌고 (Rotheram, 1983), 남성성이나 여성

성의 사람보다 갈등 상황에서 더 긍정적 감정을 가지며 동시에 더 높은 과업 에너지와 통제에의 욕구를 보인다 (Yelsma 와 Brown, 1985).

그러나 Massad (1981)의 연구에서는 여성에게는 양성성이 긍정적이었으나 남성에게는 남성성이 적응과 가장 관련이 깊다는 결과가 얻어져서 성역할정체감과 적응간의 관계도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Shapiro 와 Shapiro (1985)도 심리적 건강을 누리는 사람은 단호함/양보 통제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적극적 통제 (active control)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았음을 보고하면서 양성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성과 성역할정체감이 자기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과 성역할정체감 칸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 어떤 성역할정체감의 사람이 자기통제 만족도가 높은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3. 문화적 배경과 자기통제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생활의 최적화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그 사회의 소속원으로서의 인간은 환경에의 반응과 아울러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처한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형태는 사회마다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인간의 가치관 및 그에 따른 행위는 그가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Chung, 1983; Mead, 1953; Rao 와 Rao, 1985). 그러므로 동일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도 문화권에 따라 그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 또는 상황을 보는 시각과 그에 대한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자기통제의 경우에도 동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othbaum 등(1982)의 일차적/이차적 통제모형 또는 Shapiro (1983, 1985)의 통제의 내 유형과 통제불능이론(uncontrollability theory) 또는 무력감 이론(helpless theory)에서의 차이는 이런 문화적 상황의 인식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경우 양보(yielding)를 능동적 통제의 형태로 보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통제 외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전자의 이론은 동양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구 문화는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 그리고 분석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자연과 인간을 객체로 파악하여(Gilgen 과 Cho, 1979), 인간을 위한 자연의 극복이 주제가 되어 왔으므로 “자기주장적 통제”의 요구도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은 유교, 불교, 선에 기반을 두면서 자연과 인간을 통합된 주체로 파악하며(Gilgen 과 Cho, 1979) 따라서 조화의 개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통제에 있어서도 자기 주장적인 면 보다는 양보적 측면을 선호하며 개체의 표현보다는 순응을 통하여 삶을 이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문화권에 따라 선호하는 통제측면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다른 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Miller (1984)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습득된 문화적 차이가 청소년의 행동성향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Malony 등(1981)은 미국과 이스라엘 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을 조사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양성성에서 미국 남자들 보다 낮았으며 남성성 역시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Seiti 와 Allen (1984)은 북부 인도의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성역할 차이가 작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기술, 경제적 기반, 종교 그리고 문화유

산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정(1986)은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정체감과 자존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미국 대학생의 경우 남성성이 자존감과 관계가 컸으나 한국 대학생의 경우 자존감은 양성성과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기통제가 문화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기통제의 형태는 피이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강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문화권에 따른 통제의 개념과 방법상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통제를 자기주장/양보의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말하느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통제의 여러 문제 나아가서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건강한 삶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비교 문화적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및 미국 대학생 남녀로 각각 100-105명으로 구성되었으며(표 1) 양국간의 표본을 될 수 있는대로 비슷하게 하기 위해 연령, 전공 및 대학의 수준을 고려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연령의 범위는 19세에서 28세 이었고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을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집단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두가지로서,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em의 성역할 측정 도구(Bem Sex Role Inventory)를, 자기통제

〈표 1〉 성, 성역할정체감, 문화에 따른 분포

국 가	성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한 국	남 101	34	24	24	19
	녀 100	24	30	19	27
미 국	남 105	30	18	28	29
	녀 104	29	36	22	17
계	410	117	108	93	92

유형 및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Ganong 과 Coleman (1986)의 미조리 자기통제 측정 도구 (Missouri Self - Control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1) Bem의 성역할 측정 도구(Bem Sex Role Inventory; BSRI)

이 척도는 이제까지의 남성성 여성성 척도가 남성성, 여성성을 단일 차원으로 보는데 비해,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 보고 있고 연구에 의해서도 두 척도가 별개의 심리 검사 차원임이 밝혀지고 있다.

Bem은 BSRI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적 합치도와 양자간의 독립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Original BSRI의 40개 남성성, 여성성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고, 그 결과 남성성 척도 10문항, 여성성 척도 10문항, 중성 문항 10개로 구성된 총 30 문항의 BSRI 단축형(Short Form BSRI)을 만들었다(정, 1986). 본 연구에서는 BSRI 단축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에 의하여 산출된 내적 합치도가 0.81-0.90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6-0.91이며 타당도에서도 구인 타당도 (construct V.) 및 동시 타당도 (concurrent V.)

가 입증되었다(Gaudrau, 1977; Taylor, 1984; Wilson 과 Cook, 1984). BSRI는 Lickert type의 7점 척도로서 각문항의 성격 특성이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에 따라 1점("결코 나의 성격과 같지 않다")부터 7점("언제나 또는 거의 언제나 같다")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채점방법은 중앙치 반분법 (median split method)을 사용하여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적 집단에,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적 집단에, 이 반대이면 여성적 집단에, 두점수가 모두 각각의 중앙치 이하이면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1986)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BSRI 단축형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BSRI 단축형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남성성 척도가 0.87, 여성성 척도는 0.85로 보고되고 있다.

2) Ganong 과 Coleman의 자기통제 측정 도구 (Missouri Self - Control Instrument; MSCI)

Ganong 등이 Shapiro의 자기통제 (self-control)모델을 기초로 하여 만든 MSCI는 총 148개의 문항들로 되어 있으며 표현의 자기 통제 (expressed self-control; ESC), 양보의 자기 통제 (yielded self-control; YSC), 표현의 자기 통제 만족도 (SATESC),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SATYSC)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은 다양한 내용을 나타내는 37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현의 자기통제 척도 (ESC Scale)는 자신이 표출한다고 지각하는 자기통제의 양을 측정하고, 양보의 자기통제 척도 (YSC scale)는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며,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SATESC)와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SATYSC)는 표현 또는 양보하는 자기통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측정한다. 이 만족도 측정도구는 표현 또는 양보의 자기통제의 효율성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에서 표현의 자기통제(ESC)와 양보의 자기통제(YSC)점수는 서로 상관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두 척도가 서로 독립적임이 증명되었다. 예비 연구로 실시된 연구표집에 대한 계수는 표현의 자기통제(ESC)가 0.79, 양보의 자기통제(SATYSC)는 0.91의 분포를 보였다. MSCI 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 도구가 통제욕구(desire for control)와 단호함(assertiveness)과 같은 도구와는 같은 현상을 측정하지 않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 표현의 자기통제에의 지각량은 통제욕구와 단호함의 지각수준과 모두 낮은 정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나, 반대로 양보의 자기통제에의 지각량은 위의 개념과 zero 상관 또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 기대될 수 있다. 예비 연구에서 표현의 자기통제(ESC)와 통제욕구, 표현의 자기통제(ESC)와 단호함 척도(by Rathus)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18과 0.20이었다. 양보의 자기통제(YSC)와 통제욕구, 양보의 자기통제(YSC)와 단호함 척도는 -0.04 와 0.01 이었다. 이런 상관관계는 표현의 자기통제를 나타내는 사람은 통제에 대한 취향을 어느 정도 지나 두 척도는 다른 개념들을 측정함을 제시한다. 즉 어떤 사람의 표현의 자기통제가 그의 단호함 수준에 대한 정보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양보의 자기통제는 통제욕구나 단호함과 아무 관계가 없음이 분명하다. 이 MSCI는 5점으로 구성된 Lickert type의 척도로서 표현의 자기통제는 1점("나는 별로 자기통제를 하지 않는다")부터 5점("나는 너무 많이 자기통제를 한다")까지, 만

족도도 1점("나는 나의 자기통제 정도에 아주 불만족스럽다")부터 5점("나의 자기통제 정도에 매우 만족한다")까지 하나를 평정하게 되어 있고, 양보의 자기통제는 1점("나는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너무 많이 수용한다")부터 5점("나는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거의 받아들이지 못한다")까지, 그에 대한 만족도는 1점("아주 불만족스럽다")부터 5점("매우 만족스럽다")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각문항에서 평정된 번호를 그대로 점수화하여 합하며 각 하위 척도의 점수 범위는 5-185점이 된다.

한국인 피험자들을 위하여는 아동학 관계 연구 종사자 5명이 독립적으로 각각 번역한 것을 토대로 문항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 이중언어 구사자인 한국인 아동연구자와 함께 원문과 비교하면서 다시 수정하였다.

이 도구의 검사와 일주일후의 재검사 신뢰도는 $0.73-0.93$ 의 범위에 있었고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alpha = 0.83-0.92$ 의 범위로 결과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1988년도 11월에 뉴욕주 소재 C 대학교 인간발달부 소속의 인간대상 연구 심사 위원회에 본 연구의 목적 및 도구, 필요한 연구대상의 성격등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였다. 12월 초에 조사 실시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한국인 조교와 미국인 조교 각 1명의 도움을 얻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장에는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성, 나이, 전공, 미국 시민권 유무)을 적도록 하고 시행순서로 인해 야기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총 피험자 수의 반은 BSRI를 먼저 응답하게 하고 나머지 반은 MSCI를 먼저 응답하게 하였다. 서울 소재의 K 대학교 학생에게도 미국에서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었고 검사기간은 89년 9월 부터 12월 까지였다. 검사시간은 양 국가 모두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미국 대학생의 경우 총 250명중 미국시민이 아니거나 응답치 않은 문항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한 209부와 한국의 경우 회수된 215부중 미완성인 질문지를 제외한 201부 총 410부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Bem의 성역할 검사 결과 남성성, 여성성 점수로 나라별로 성역할정체감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고 Missouri self-control 도구에 의해 자기통제의 유형 및 만족도 점수를 계산하여 2(성)×4(성역할정체감)×2(문화)의 3원 다변량 분산분석(Three way MANOVA)를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종속변인에서 그룹간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동시신뢰구간을 구하여 검증하였다. 모든 검정에서 유의 수준은 5%로 하였으며 모든 통계처리는 SAS/PC를 이용하였다(SAS Institute, 1985).

IV. 결과 및 논의

한국과 미국 대학생 표본의 남성성, 여성성 중앙치 점수와 Missouri Self-control Instrument에 의해 측정된 자기통제 영역의 평균점수가 <표 2>와 <표 3>에 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 2> 한국 및 미국 대학생의 남성성, 여성성 중앙치 점수

국 가	남성성 척도	여성성 척도
한 국(N=201)	4.17	4.83
미 국(N=209)	4.77	5.59

<표 3> 한국 및 미국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통제 평균점수

국 가	하위변인	남(N)	녀(N)	양성성(N)	남성성(N)	여성성(N)	미분화(N)
한국		(101)	(100)	(58)	(43)	(54)	(46)
	ESC	113.99	109.41	116.64	112.40	109.35	107.63
	YSC	115.68	110.29	115.50	116.02	109.52	111.10
	SATESC	113.03	107.42	118.40	109.49	106.09	105.52
미국	SATYSC	114.75	108.96	117.76	112.88	108.20	107.80
		(105)	(104)	(59)	(50)	(54)	(46)
	ESC	118.03	111.80	118.40	113.04	113.42	114.41
	YSC	110.02	104.60	106.90	104.70	108.62	109.15
SATYSC	SATESC	126.31	119.04	129.60	123.48	118.11	118.61
	SATYSC	126.13	119.48	129.78	124.96	117.78	117.76

ESC : 표현의 자기통제, YSC : 양보의 자기통제, SATESC :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SATYSC :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1. 한국 대학생의 성,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통제

한국 대학생의 성, 성역할정체감이 자기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성) × 4(성역할정체감)의 Two Way MANOVA를 하였다. 유의성 검증에는 Wilk's Lamda를 사용하였고 모든 유의수준은 $\alpha = 0.05$ 로 정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과 성역할정체감은 각각 자기통제에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들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4> 성,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한국 대학생의 자기통제에 관한 Two way MANOVA의 결과

변 인	Wilk's Lamda	F	P(F)
성(A)	0.94743	2.6357*	0.0355*
성역할정체감(B)	0.85811	2.4957*	0.0355*
A×B	0.93361	1.1026	0.3554

* p<0.05

이러한 결과가 어느 종속변인에서의 그룹간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동시신회구간 검증을 하였다. 남, 녀 대학생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한국 대학생의 자기통제에 있어서 남녀간 동시신회구간

하 위 변 인	비교 집단 여성-남성
표현의 자기통제(ESC)	-7.29/-1.75*
양보의 자기통제(YSC)	-8.04/-2.74*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SATESC)	-9.07/-2.15*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SATYSC)	-8.75/-2.83*

* p<0.05

<표 5>에 의하면 표현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네 영역 모두에서 남 녀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표현적, 양보적 자기통제 모두를 더 많이 행사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Ganong 과 Coleman (1987)의 미국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얻었던 결과와는 상치된다. 또한 이론적으로 예측되었던 바 남자는 좀더 표현적이고 적극적인 목적 지향의 자기통제를, 여자는 수용적이고 양보적인 자기통제를 더 많이 행사하도록 기대되는 것과는 상치된다. 여자가 의존심을 조장하고 자신감을 억제하는 사회화 과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통제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될 수 있다. 표현의 자기통제든 양보의 자기통제든 자신감있게 행사하지 못할 뿐아니라 그 통제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부족한 것 같다. 이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억압된 기분을 갖는다는지(Scarf, 1979) 우울증세를 더 많이 나타내고 좌절에 대한 공포도 많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한다는(Silverman et al., 1970)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같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여성들로 하여금 좀더 수동적, 의존적이며 힘과 능력에 있어서 약한 편에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만일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내면화한다면 여성은 자기에게 부딪치는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에서 남자보다 뒤떨어질 수 있고 여성 스스로 자신이 지배자가 될 수 없다든지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없다고 배우게 됨으로써 통제능력의 행사에서 무력감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여

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저해하게 되고(Sappenfield 와 Harris, 1975) 그 결과 표현과 양보의 자기통제 모두를 큰 폭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 행동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지 않게 나타났을 것이다.

성별간 차이를 보이는 자기통제의 4 영역들의 상대적인 판별력을 나타내 주는 판별함수 계수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남녀집단의 판별에 있어 양보의 자기통제, 표현의 자기통제만족도 순으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양보의 자기통제가 한국 대학생의 남녀간 집단차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주목할 만하다.

<표 6> 한국 대학생에 있어서 Missouri Self-Control 영역의 남녀별 판별함수 계수

하 위 영역	여 성	남 성
표현의 자기통제(ESC)	0.3004	0.3048
양보의 자기통제(YSC)	0.4661	0.4897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SATESC)	0.0393	0.0480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SATYSC)	0.2006	0.2121

한국 대학생에게는 표현의 자기통제보다 양보의 자기통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예측되었던 바와 같이 한국인의 삶에서는 목적 지향적인 면보다 사상에 대한 수용적인 면이 더 중요함을 나타내 준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어느 종속변인에 기인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동시신뢰구간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양성성 집단은 여성성, 미분화 집단과는 자기통제 4 영역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며 남성성 집단과는 양보의 자기통제를 제외한 3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성성 집단은 여성성 집단과는 양보의 자기통제와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에서, 미분화집단과는 표현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며 여성성과 미분화 집단간에서는 어느 변인에서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한국 대학생에 있어서 양성성 그룹이 표현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를 모두 가장 높게 행사하며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양성성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하는 모델이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주장에 상응하며 양성성의 사람이 자존감, 자기 수

<표 7> 한국 대학생의 자기통제에 있어서 성역할정체감간 동시신뢰 구간

하위변인	비		교		집		단
	양성성-여성성	양성성-남성성	양성성-미분화	여성성-남성성	여성성-미분화	남성성-미분화	
ESC	3.75/10.82*	9.74/ 8.38*	5.18/12.84*	- 7.12/ 1.02	-2.02/5.46	0.35/9.19*	
YSC	2.26/ 9.70*	4.32/ 3.29*	0.49/ 8.29*	-10.19/-2.81*	-5.38/2.20	1.01/8.81*	
SATESC	8.37/16.25*	4.52/13.29*	8.75/17.01*	- 7.74/ 0.94	-3.50/4.64	-0.60/8.54	
SATYSC	5.89/13.23*	0.48/ 9.28*	5.90/14.02*	- 9.08/-0.28*	-3.65/4.45	0.24/9.92*	

ESC : 표현의 자기통제, YSC : 양보의 자기통제, SATESC :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SATYSC :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 p<.05

용, 타인 수용에 있어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그룹보다 더 높고 자신 및 타인들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Eman 과 Morse , 1977) 연구 결과와도 관계 있는 것 같다.

또한 Nevill (1977)은 사회적 바람직성은 양성성과 관련이 깊으며 양성성의 사람들은 자기(self)를 좋아하고 수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속성이 양성성의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 모두를 높게 행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양한 환경에의 적절한 통제 행위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그 통제 행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 양성성과 관계 있다고 해석된다. Shapiro (1983)는 표현과 양보의 자기통제를 균형있게 행사하는 사람이 통제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Ganong (1987)의 연구 결과 미국 대학생의 경우 양성성의 사람이 양보 및 표현의 통제를 가장 높게 행사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았지만 양성성의 사람이 표현 및 양보의 자기통제를 균형되게 행사하는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즉 표현의 자기통제를 양보의 자기통

제 보다 더 많이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현 연구 결과는 한국의 대학생의 경우 양성성 집단이 Shapiro 의 가설에 부합되게 표현 및 양보의 자기통제를 비슷하게 높게 행사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도 가장 높다. 이는 Shapiro 의 가설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입증하는 것 같다.

성역할정체감간 자기통제 영역의 상대적인 판별력을 나타내 주는 판별함수를 <표 8>에서 살펴보면 양보의 자기통제, 표현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순으로 판별에서의 중요도를 보였다. 양보의 자기통제가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집단 판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에 비해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는 성역할정체감에서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성과 성역할정체감은 한국 대학생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여자보다 남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양성성 집단이 표현 및 양보의 자기통제를 더 많이 행사하고 자기통제 행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또한 한국 대학생에 있어서 양보의 자기통제(YSC)가 다른 영역에 비해 중요함이 밝혀졌다.

<표 8> 한국 대학생에 있어서 Missouri Self-Control Instrument 영역의 성역할정체감별 판별함수

하 위 영 역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표현의 자기통제	0.2847	0.2979	0.2988	0.2812
양보의 자기통제	0.4850	0.4593	0.4910	0.4715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0.1366	0.0765	0.0769	0.0854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0.1946	0.1948	0.2083	0.1915

2. 미국 대학생의 성,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통제

미국 대학생의 성, 성역할정체감이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성, 성역할정체감의 주효과가 의미있게 나왔으므로 먼

저 성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종속 변인에서 기인되는 지를 알기 위해 동시신뢰구간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9> 미국 대학생의 성,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통제에 관한 Two way MANOVA 결과

변 인	Wilks's Lamda	F	P)F
성(A)	0.8923	5.9767	0.0001*
성역할정체감(B)	0.8534	2.6976	0.0015*
A×B	0.9068	1.6449	0.0759

* p<0.05

<표 10> 미국 대학생의 자기 통제에 있어서 남녀 간 동시신뢰구간

하 위 변 인	비교집단
	여성-남성
표현의 자기통제(ESC)	- 8.59/-3.87*
양보의 자기통제(YSC)	- 8.11/-2.73*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SATEESC)	-10.48/-4.06*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SATYSC)	- 9.90/-3.40*

* p (0.05)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통제의 행사 및 만족도 모두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표현적 양보적 자기통제 모두를 더 많이 행사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이는 한국 대학생의 남녀간 차이와 유사하며 이에 대한 해석도 한국 대학생의 경우와 같이 해 볼 수 있다.

미국 대학생에 있어서 자기통제 영역에 따른 남녀별 판별함수의 계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미국 대학생에 있어서 자기통제 영역의 남녀별 판별함수의 계수

하 위 영 역	여 성	남 성
표현의 자기통제(ESC)	0.6331	0.6658
양보의 자기통제(YSC)	0.4788	0.5034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SATEESC)	-0.0077	-0.0004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SATYSC)	0.1666	0.1708

<표 11>에 의하면 표현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순으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대학생과는 달리 미국 대학생의 집단차를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기통제이다. 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된 것으로서 부딪치는 사상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양보의 자기통제가 자족(self sufficiency)과 자연과의 합일을 강조하는 유교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대학생에게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진취적이고 자연을 극복하는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대학생에게는 목적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기통제가 남녀 집단 판별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의 한국 및 미국 대학생의 성, 성역할정체감별 자기통제 점수에서 처럼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생의 경우 표현의 자기통제와 양보의 자기통제 점수가 비슷하거나 양보의 자기통제 점수가 높는데 비해 미국 대학생의 경우는 표현의 자기통제 점수가 양보의 자기통제 점수에 비해 모든 집단에서 두텁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 미국 대학생에 있어

서도 성역할정체감 효과가 관찰되었으므로 어느 종속변인에서 성역할정체감 집단간 차이를 보이 는지를 알기 위하여 동시실험구간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미국 대학생의 자기통제에 있어서 성역할정체감간 동시실험 구간

하위변인	비		교		집		단	
	양성성-여성성	양성성-남성성	양성성-미분화	여성성-남성성	여성성-미분화	남성성-미분화		
ESC	1.64/ 8.32*	1.84/ 8.88*	0.65/ 7.33*	- 3.17/ 3.93	-4.37/2.39	-4.35/ 2.81		
YSC	-5.59/ 2.15	-1.89/ 6.29	-6.09/ 1.59	- 6.60/ 7.91	-4.25/3.19	-8.41/-0.49*		
SATESC	6.78/16.20*	1.41/10.83*	6.46/15.52*	- 9.87/-0.87*	-4.80/3.80	0.59/ 9.14*		
SATYSC	7.23/16.77*	-0.17/ 9.80	7.20/16.83*	-11.42/-2.94*	-3.91/3.95	3.16/11.24*		

ESC : 표현의 자기통제, YSC : 양보의 자기통제, SATESC :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SATYSC :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 $p < .05$

<표 12>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의 양성성 집단은 여성성 및 미분화 집단과는 양보의 자기통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성성 집단과는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및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에서, 여성성 집단과는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및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과는 어떠한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즉 양성성 집단은 다른 그룹보다 표현의 자기통제를 더 많이 행사하며 그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지만 양보의 자기통제는 그룹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그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다. 이처럼 미국 대학생에 있

어서도 양성성 집단이 자기통제 만족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의 경우는 Ganong (1987)의 연구결과와 같이 양성성 그룹이 표현의 자기통제를 양보의 자기통제 보다 유의하게 높게 행사하였다. 이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와는 대조되는 결과로 양성성의 사람이 표현 및 양보의 자기통제를 가장 많이 행사하지만 두가지의 통제유형이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균형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미국 대학생의 자기통제 영역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판별함수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미국 대학생에 있어서 Missouri Self-Control Instrument 영역의 성역할정체감별 판별함수

하 위 영역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표현의 자기통제	0.6031	0.6018	0.5772	0.6090
양보의 자기통제	0.4294	0.4511	0.4227	0.4539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0.0068	-0.0124	-0.0053	-0.0102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0.1861	0.1534	0.1883	0.1487

〈표 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역할정체감의 4 집단 모두 표현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양보의 자기통제가 성역할집단차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반면 미국 대학생에게는 표현의 자기통제가 성역할정체감간 차이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과 성역할정체감은 미국 대학생의 자기통제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남자가 여자보다 표현 및 양보의 자기통제를 많이 행사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양성성 집단이 다른 성역할정체감 집단보다 표현의 자기통제를 더 행사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 및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를 높게 보였다. 성 및 성역할정체감간에 차이를 보이는 자기통제 영역의 판별함수를 보면 미국 대학생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기통제가 중요한 판별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통제의 비교

〈표 14〉 문화, 성역할정체감, 성에 따른 자기통제에 관한 Three way MANOVA 결과

변 인	Wilks's Lamda	F
문화(A)	0.79231	25.6228*
성역할정체감(B)	0.89575	10.4592*
성(C)	0.92683	7.7165*
A×B	0.95355	1.5644
A×C	0.99687	0.3069
B×C	0.96560	1.1486
A×B×C	0.95191	1.6214

* p<0.05

자기통제에 미치는 문화의 효과를 알아 보고자 문화(2)×성역할정체감(4)×성(2)의 삼원 다변량 분산분석을 하였다. 〈표 14〉에서 처럼 문화적인 변인이 유의함을 보여 주었다.

자기통제의 어느 하위변인에서 문화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동시신뢰구간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자기통제에 있어서 문화간 동시신뢰구간

하 위 변 인	비 교 집 단
	미국-한국
표현의 자기통제	1.37/ 5.06*
양보의 자기통제	-7.60/-3.76*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10.20/14.70*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	8.72/13.18*

* p<0.05

〈표 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통제의 4영역 모두에서 문화간 차이를 보인다. 미국 대학생이 표현의 자기통제, 표현의 자기통제 만족도, 양보의 자기통제 만족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한국 대학생은 미국 대학생 보다 양보의 자기통제에서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의 진취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기독교 문화와 수용적이고 자족적인 유교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예측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이 양보의 자기통제는 더 많이 행사하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미국 대학생 보다 낮다는 것은 양보의 자기통제 행사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한국 대학생이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통제 유형 및 자기통제 만족도가 성, 성역할체감,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었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였다. 첫째, 한국과 미국 대학생 계층에서는 공통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표현의 자기통제, 양보의 자기통제를 높게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다. 둘째, 양성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표현 및 양보의 자기통제를 높게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다. 셋째, 자기통제 영역 중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영역은 한국에서는 양보의 자기통제이고,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기통제이다. 넷째, 미국 대학생에 비해 한국 대학생은 양보의 자기통제를 더 많이 행사하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기통제와 만족도간의 갈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수의 표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얻어진 결과로 미루어 앞으로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서 보이는 갈등요소 해소를 위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성역할정체감, 또는 성 및 자기통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통제 측정도구는 미국의 문화권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재조정, 개발하는 작업이 필연이라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장재정(1987). 중년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옥분(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 123-137.
- 정옥분(1987). 다변량 분석. 한국 아동학회 WORKSHOP : 아동 가족연구를 위한 고급통계.
- Phares, E. J. (1984). Introduction to personality. 홍숙기 역(1987) 성격 심리학, 박영사.
- Schultz, D. (1977). Growth psychology: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New York: van Nostrand Company. 이혜성 역(1982). 성장 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Allport, G. (1955). Becoming: Basic consideration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Averill, J. R. (1973). Personal control over aversive stimuli and its relationship to stress. Psychological Bulletin, 80, 286 - 303.
- Baucom, D. H. (1983). Sex role identity and decision to regain control among women: A learned helplessness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334 - 343.
- Baucom, D. H. & Danker - Brown, P. (1979). Influence of sex - roles on the development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928 - 936.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 - 162.
- Bem, S. L. (1975). Sex -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 634 - 643.
- Bem, S. L. & Lenny, E. (1976). Sex typing and the avoidance of cross sex behaviou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8 - 54.
- Bem, S. L. (1979). Theory and measurement of androgyny: A reply to the Pedhazur - Tetenbaum and Locksley Colton critiq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047 - 1054.
- Block, J., von der Lippe, A. & Block, J. H. (1973). Sex role and socialization patterns: Some personality concomitants and environmental antece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3), 321 - 341.
- Burger, J. M. (1984). Desire for control, locus of control, and proness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52, 71 - 89.
- Burger, J. & Cooper, H. (1979). The desirability of control. Motivation and Emotion, 3, 381 - 393.
- Chung, O. B. (1983). Sex - role identity and self - esteem among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Cook, E. P. (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ew York: Pergamon.
- Cooper, K., Chassin, L. & Zeiss, A. (1985). The relation of sex - role, self - concept and sex - role attitudes to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ersonal adjustment of dual - work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12, 227 - 241.
- Downey, A. M. (1984). The relationship of sex - role orientation to self - perceived health status in middle - aged males. Sex Roles, 11, 211 - 225.
- Eman, V. A. & Morse, B. W. (1977).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drogyny and self - esteem, self acceptance of 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 Fabricant, B. (1974). The psychotherapist and the female patient: Perceptions, misconceptions, and change. In V. Franks and V. Burtke(Eds.), Women in Therapy: New psychotherapies for a changing society. New York: Brunner / Mazel.
- Feather, N. T. (1985). Masculinity, femininity, self - esteem and subclinical depression. Sex Roles, 12, 491 - 500.
- Flaherty, J. F. & Dusek, J. B. (1980).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rogyny and components of self -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984 - 992.
- Frank, S. J. & McLaughlin, A. M. (1984). Sex role attributes, symptom distress and defensive styl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82 - 192.

- Frank, S. J., Towell, P. A. & Margaret, H. (1985). The effect of sex - role traits on three aspects of psychological well - being in a sample of middle - aged women. Sex Roles, 12, 1073 - 1087.
- Ganong, L. H. & Coleman, M. (1986).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expressed and yielded self - control.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ssouri - Columbia.
- Ganong, L. H. & Coleman, M. (1987). Sex roles and yielded / expressed self - control. Sex Roles, 16, 401 - 408.
- Gaudrau, P. (1977). Factor analysis of the Bem Sex - Role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299 - 302.
- Gilgen, A. R. & Cho, J. H. (1979). Questionare to measure eastern and western thought. Psychological Reports, 44, 835 - 841.
- Hefner, R., Rebecca, M., & Oleshansky, B. (1975). Development of sex - 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143 - 158.
- Hendrix, L. & Johnson, G. D. (1985). Instrumental and expressive socialization: A false dichotomy. Sex Roles, 13, 581 - 595.
- Instone, D., Major, B. & Bunker, B. B. (1983). Gender, self - confidence, and social influence strategies: An organizational sim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322 - 393.
- Journard, S. M. (1968). Personal adjustment: An approach to the study of healthy personality, 2nd edition, New York: D. van Nostrand.
- Kelly, J. A. & Worell, J. (1977). New formulations of sex roles and androgeny: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101 - 1115.
- Kingery, D. W. (1985). Are sex role attitudes useful in explaining male / female differences in rates of depression? Sex Roles, 12, 627 - 635.
- Langer, E. J. (1983). The psychology of control, Beverly Hills, CA: Sage.
- Lanzetta, J. & Driscoll, J. C. (1966). Preference for information about an uncertain but unavoidable outco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215 - 221.
- Lewin, M. & Tragos, L. M. (1987). Has the feminist movement influenced adolescent? Sex Roles, 16, 125 - 135.
- Lewis, H. B. (1985). Depression vs. Paranoia: Why are there sex differences in mental illness? Journal of personality, 53(2), 150 - 177.
- Lind, P. & Connole, H. (1985). Sex differences in behavioural and cognitive aspects of decision control. Sex Roles, 12, 813 - 823.
- Locksley, A. & Colten, M. E. (1979). Psychological androgyny: A case of mistaken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017 - 1031.
- Lubinsky, D., Tellegen, A. & Butcher, J. N.

- (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androgyny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emotion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722 - 730.
- Lykes, M. B. (1985). Gender and individualistic vs. collectivist bases for notions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53 (2), 356 - 383.
- Major, B., Carnevale, P. J. D. & Deaux, K. (1981). A different perspective on androgyny: Evaluations of masculine and feminin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988 - 1001.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New York: D. van Nostrand.
- Massad, C. M. (1981). Sex role identity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2, 1290 - 1298.
- McGinnis, E. & Ward, C. D. (1974). Persuasibility as a function & source credibility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42, 360 - 371.
- Mead, M. (1953). Male and female: A study of the sexes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Morrow.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 - 978.
- Nevill, D. D. (1977). Sex roles and personality correlates. Human Relations, 30, 751 - 759.
- O'Conner, K., Mann, D. & Bardwick, J. M. (1978). Androgyny and self-esteem in the upper-middle class: A replication of Sp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168 - 1169.
- Orlefsky, J. L. (1977). Sex-role orientation, identity formation, and self-esteem in college men and women. Sex Roles, 3, 561 - 575.
- Pedazdur, E. J. & Tetenbaum, T. J. (1979). The Bem Sex-Role Inventory: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996 - 1016.
- Pittman, T. S. & Pittman, N. L. (1980). Deprivation of control and the attribu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377 - 389.
- Pidano, A. E. & Tennen, H. (1985). Transient depressive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gender and sex role orientation. Sex Roles, 12, 97 - 111.
- Rao, V. V. P. & Rao, V. N. (1985). Sex role attitudes across two cultures: United States and India. Sex Roles, 13, 607 - 624.
- Rothbaum, F., Weist, J. R., & Snyder, S.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 - 37.
- Rotheram, M. J. & Weiner, N. (1983). Androgyny, stress and satisfaction. Sex Roles, 9,

- 151 - 158.
- Rotter, J. B. (1954).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 - 28.
- Ruch, L. O. (1984). Dimensionality of the Bem Sex Role Inventory: Multidimensional analysis. Sex Roles, 10, 99 - 117.
- Sappenfield, B. & Harris, C. (1975). Self - reported masculinity - femininity as related to self - esteem. Psychological Reprints, 37, 669 - 670.
- Scarf, M. (1979). The more sorrowful sex. Psychological Today, 12 (11), 44 - 52.
- Seiti, R. R. & Allen, M. J. (1984). Sex - role stereotypes in norther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Sex Roles, 11, 615 - 626.
- Shapiro, J. & Shapiro, D. H. (1983). Well - being and relationship. In R. N. Walsh & D. H. Shapiro(Eds.) Beyond health and normality. New York: van Nostand.
- Shapiro, J. & Shapiro, D. H. (1984). Self - control and the path of relationship.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4, 91 - 116.
- Shapiro, J. & Shapiro, D. H. (1985). A "control" model of psychological health: Relation to "traditional" and "liberated" sex role stereotypes. Sex Roles, 12, 433 - 447.
- Silverman, L., Shulman, A. D. & Wiesenthal, D. L. (1970). Effects of deceiving and debriefing psychological subjects on performance in later experi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203 - 210.
- Smith, R. A., Wallston, B., Forsberg, P. & King, J. (1984). Measuring desire for control of health car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415 - 426.
- SAS Institute (1985). SAS/STAT Guide for personal computers. Cary.
- Strassberg, D. S. (1973). Relationships among locus of control, anxiety and valued - goal expect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319.
- Strickland, B. R. (1974). Delay of gratification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192 - 1211.
- Taylor, D. (1984). Concurrent validity of the Bem Sex Role Inventory: P A person - environmental approach. Sex Roles, 10, 713 - 723.
- Taylor, D. A. & Hinds, M. C. (1985). Disclosure reciprocity and liking as a function of gender and personalism. Sex Roles, 12, 1137 - 1153.
- Walsh, R. N. & Shapiro, D. H. (1983). Sex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depression: A developmental interaction effects. Sex Roles, 12, 91 - 95.
- White, R.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 Review, 66, 297 – 333.
- Whitley, B. E. (1984). Sex - 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 - being: Two - meta - analysis. Sex Roles, 12, 207 – 225.
- Williams, J. A. (1979). Psychological androgyny and mental health. In O. Hartnet, G. Bonden, & M. Fuller(Eds.) Sex - Role stereotyping. London: Tavistock.
- Wilson, F. R. & Cook, E. P. (1984). Concurrent validity of four androgyny instruments. Sex Roles, 11, 813 – 837.
- Yelsma, P. & Brown, C. T. (1985). Gender roles, biological sex, and predisposition to conflict management. Sex Roles, 12, 731 – 747.